다산학 12호(2008.06) : 49~80

이강회李綱會의 『탐라직방설耽羅職方說』과 제주도濟州道*

조성산**

1. 머리말

1930년대 조선학 운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약용(丁若鏞, 1762~1836)과 그의 학문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국학國學 연구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강진에 유배되어 집필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는 방대한 분량으로 경학經學, 경세학經世學, 심성론心性論을 망라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국내외에서 그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정약용 일개인을 넘어서 정약용의 주변 인물과 제자 그룹인 '다산학단茶山學團'으로 그 관심이 확장되면서 다산학 연구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1] 그간 황상(黃裳, 1788~1863경)·윤정기(尹廷琦,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L0013).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원.

1) 다산학단 연구의 필요성은 임형택, 「丁若鏞의 康津 流配時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韓國漢文學硏究』 21, 1998(『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 비평사, 2000 재수록)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1814~1879)·이강회(李綱會, 1789~ ?) 등 다산학단 인물들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2] 그 가운데 이강회에 대한 연구는 다산학의 경세학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주목되었다. 『운곡잡저雲谷雜楮』, 『유암총서柳菴叢書』 등 그의 저작들에서 보이는 경세학은 정약용의 그것을 가장 충실히 계승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자료 발굴과 정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졌다.[3]

최근 이루어진 이강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의 수레와 배 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용후생학利用厚生學에 주목한 연구,[4] 이강회의 저술과 그의 경세사상을 해양海洋과 관련해서 살펴본 연구,[5] 이강회의 경세학을 근기남인의 『주례周禮』 연구와 노론계 북학사상北學思想과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조망한 연구가 있었다.[6] 또한 이강회의 「운곡선설雲谷船說」을 통해

2) 이용범, 「蠹琴 尹廷琦의 歷史意識」, 『現代史學의 諸問題- 南溪曺左鎬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77 ; 박준호, 「舫山 尹廷琦 文學 硏究」,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92 ; 서종태, 「손암 정약전의 실학사상」, 『동아연구』 24, 1992 ; 진재교, 「舫山 尹廷琦의 國風論」, 『韓國漢文學硏究』 17, 1994 ; 진재교, 「舫山 尹廷琦의 詩經論에 대한 豫備的 檢討」, 『書誌學報』 14, 1994 ; 박인호, 「東寰錄에 나타난 尹廷琦의 역사지리인식」,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朝鮮社會硏究會, 1998 ; 임형택, 앞의 논문(1998) ; 안대회, 「丁若銓의 松政私議」, 『문헌과해석』 20, 2002 ; 진재교, 「茶山學의 形成과 巵園 黃裳」, 『大東文化硏究』 41, 2002 ; 허태용, 「丁若銓의 玆山魚譜 연구」, 『韓國人物史硏究』 4, 2005 ; 안대회, 「茶山 제자 李綱會의 利用厚生學」, 『韓國實學硏究』 10, 2005 ; 이철희, 「茶山 詩學의 계승자 黃裳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 『大東文化硏究』 53, 2006 ; 임형택, 「茶山學團에서 海洋으로 學知의 열림-李綱會의 경우-」, 『大東文化硏究』 56, 2006 ; 조성산, 「李綱會의 經世思想-茶山學 繼承의 한 局面」, 『大東文化硏究』 57, 2007 ; 김경옥, 「19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담을 통해 본 선박건조술」, 『역사민속학』 24, 2007.

3) 이강회 저작 번역이 전라남도 신안문화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이강회 지음, 김형만·김정섭·안대회 옮김, 『雲谷雜楮』 1권, 신안문화원, 2004 ; 정약전·이강회 지음, 김정섭·김형만 옮김, 『柳菴叢書』, 신안문화원, 2005 ; 이강회·정약용 지음, 김형만·김정섭 옮김, 『雲谷雜楮』 2권, 신안문화원, 2007.

4) 안대회, 앞의 논문, 2005.

5) 임형택, 앞의 논문, 2006.

서 그의 선박설船舶說을 상세히 밝힌 연구도 나왔다.[7] 공백으로 남아있었던 정약용 이후 19세기 초·중반 다산학 계승의 양상들이 일부분 밝혀졌다는 점은 이 시기 지성사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본 글은 이강회의 저작 가운데 제주도 지리지의 성격을 갖는 『탐라직방설耽羅職方說』을 살펴보고자 한다.[8] 『탐라직방설』은 이강회가 남긴 거의 유일한 지리지라는 점에서 비록 분량은 소략하지만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탐라직방설』은 권1의 제주도의 일반적인 지리현황과 권2의 「상찬계시말相贊契始末」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19세기 제주도의 지리현황과 향촌사회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권2에 실린 「상찬계시말」은 19세기 전반 제주도濟州道 양제해梁濟海의 난亂이 가졌던 성격을 새롭게 규명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탐라직방설』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추후 이강회의 경세사상과 19세기 전반 제주도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이강회와 『탐라직방설』

1) 이강회와 『탐라직방설』의 저술 동기

이강회는 광주이씨廣州李氏로서 이보만李保晩의 5대손이었다. 이보만은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 1499~1572)의 후손이며,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사위로서 윤선도가 해남으로 유배오자 함께 이곳으로 내려왔고, 그 후손 가운데 일부가 강진에 남아 계속 살았다. 이러한 사실은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과 『광주이씨대동보廣州李氏大同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신계절목』에는 강진 백도白道의 땅을 광주이씨 이문백李文伯(李基祿의

6) 조성산, 앞의 논문, 2007.
7) 김경옥, 앞의 논문, 2007.
8) 이 저작은 일본 京都大 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최근에 임형택 교수에 의해서 발굴·소개되었다. 임형택, 앞의 논문, 2006, 84쪽, 95~98쪽 참조.

字, 1780~?)이 조관토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광주이씨대동보』또한 이보만 자손의 한 계파가 강진 지역에 거주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9] 참고적으로 이보만의 자손들은 『북보北譜』에 의하면 북인北人으로 규정되어 있다.[10] 『북보』를 따른다면 이들의 당색은 북인北人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11]

해남윤씨가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이강회는 정약용이 유배오자 그의 제자가 되었다. 정약용은 윤선도의 고손이었던 윤덕렬尹德烈을 외조부로 두었고 그만큼 해남윤씨와 가까운 사이였다. 이강회는 다산茶山 문하에 들어가 경학經學과 경세학經世學을 공부하였고, 특히 『주례周禮』에 관심을 가졌다. 『주례』는 경세학에 관심 갖던 학인들이 깊이 연구하던 서적으로서 주周나라 주공周公 시대의 이상적인 문물제도가 실려 있었다. 그가 우이도에서 집필하였던 것도 『주관연의周官演義』라는 『주례』 관련 책이었다. 나아가 그가 우이도에서 문순득(文淳得, 1777~1847)과 만나면서 수레와 선박에 관심 갖게 된 것도 『주례』 연구 과정에서 형성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주례周禮』는 「천관총재天官冢宰」, 「지관사도地官司徒」, 「춘관종백春官宗伯」, 「하관종백夏官宗伯」, 「추관사구秋官司寇」, 「동관사공冬官司空」으로 편제가 나뉘어 있었고, 각 장마다 고유한 체제와 제도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동관冬官」 편은 주공周公의 저작이 아니었다. 아마도 「동관冬官」 편에는 수레·배와 같은 공업工業에 관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론되는데, 처음부터 이 편이 누락되어 있어서 공인工人의 직무

9) 임형택, 앞의 논문, 1998, 128~129쪽.

10) 李離和 編, 『朝鮮黨爭關係資料集』 17(『北譜』 天), 여강출판사, 1987, 50~52쪽 참조.

11) 『南譜』에 의하면 광주이씨의 상당수는 南人이 된다. 광주이씨 가운데 北人으로 남은 집안은 仁孫-克堪 계 가운데 延慶을 제외한 有慶, 潤慶, 浚慶의 후손들이었다.

30종을 기록하는 『고공기考工記』로 이를 대신하고 있었다. 이강회는 『주례』「동관」 편의 누락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성인聖人의 제도制度를 복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북학의北學議』와 『열하일기熱河日記』 등 북학파北學派 인물들의 저작들과 만나면서 더욱 굳어졌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운곡선설」, 「차설답객난車說答客難」 같은 글이었다. 이를 통해서 조선의 배와 수레를 개혁하고, 나아가 『주례』의 이상을 조선에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고전학古典學으로서의 『주례』 연구가 실용적인 학문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12]

이와 같이 수레와 배에 대한 관심 이외에 『주례』에 대한 관심이 직접적으로 표명된 곳이 바로 『탐라직방설』이었다. 이강회는 『탐라직방설』을 짓게 된 동기를 서두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삼가 『주관周官』 직방職方의 법法을 살펴보니, (職方氏는) 천하天下의 지도地圖를 관장한다. 천하天下의 땅을 관장함으로써 그 큰 나라와 작은 나라와 도都와 비鄙, 사이四夷·팔만八蠻·칠민七閩·구맥九貉·오융五戎·육적六狄의 인민人民과 재용財用, 구곡九穀, 육축六畜의 수요를 분변함으로써 그 이해利害를 두루 안다 대저 직방職方의 기록은 후세 일통지一統志의 권여權輿였던 것이다. 지금 우리 제주는 비록 절해絶海에 처해있으나 중고中古에는 제후국의 나라였다. 또한 그 폭원幅員의 광대함은 단지 포상浦上의 나라일 뿐만이 아닌 까닭에 따로 그 개요를 기술하여 사사로이 보고자 한다.[13]

그는 『주례周禮』「직방職方」 부분을 보니 직방씨職方氏는 천하天下의 지도地圖와 땅을 관장하면서 지리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 자신

12) 이 문단의 서술은 조성산, 앞의 논문, 2007, 150~158쪽 참조.

13) 『耽羅職方說』 卷1. "竊稽周官職方之法, 掌天下之圖, 以掌天下之地, 辨其邦國都鄙四夷八蠻七閩九貉五戎六狄之人民, 與其財用九穀六畜之數要, 周知其利害. 夫是職方之記, 乃後世一統志之權輿也. 今我濟州, 雖處絶海, 乃中古侯主之國也. 又其幅員之廣大, 不特浦上之國. 故別記其槩, 以爲私覽"

도 이러한 뜻에 의거하여 제주도 지리지를 만드는 것임을 서술하였다. 즉 『탐라직방설』은 『주례』 직방의 문제의식 속에서 제주도에 대한 지리 현황을 정리한 글인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탐라직방설』의 저술은 사사로운 호사가적 취향이 아닌 『주례』에 입각한 경세학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조선중기 들어서 사찬읍지私撰邑誌가 성행하였다.[14] 이때 만들어진 사찬읍지는 지방수령과 해당 지역 사족이 함께 작성하였으며, 통치의 보조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관찬읍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강회의 『탐라직방설』은 사찬읍지의 범주에 속하지만 지방수령과 사족이 함께 만드는 일반적인 양식을 따르지는 않았다. 순수하게 이강회 자신의 개인적인 사람私覽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19세기가 되면 김정호(金正浩, 1804~1866)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 민인들도 다양한 지리 관련 서적들을 통해서 고급 지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중요한 성과도 내고 있었다.[15] 이강회의 『탐라직방설』 작업 또한 이것과 궤를 같이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전하는 제주도 관련 지리지와 저작들은 크게 관官에서 작성한 것과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관官에서 작성한 것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세종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성종대), 『제주읍지濟州邑誌』(정조대),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정조대), 고종대에 편찬된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 『대정읍군지大靜邑郡誌』, 『정의읍지旌義邑誌』 등을 들 수 있다.[16]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는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남환박물南宦博物』, 이원진(李元鎭, 1594~1665)·고홍진高弘進의 『탐라지耽羅志』, 김정(金淨, 1486~1521)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임

14) 조선중기 私撰邑誌에 관해서는 양보경, 「조선중기 私撰邑誌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81, 1998 참조.
15) 양보경, 「고산자 김정호의 지리사상」, 『국토』 207, 1999, 88~89쪽.
16) 양보경, 「濟州道邑誌 解題」, 『邑誌-六 濟州道』, 아세아문화사, 1983.

제(林悌, 1549~1587)의 『남명소승南溟小乘』,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남사록南槎錄』, 이건(李健, 1614~1692)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1628~1634), 이익태(李益泰, 1633~1704)의 『지영록知瀛錄』, 김성구(金聲久, 1679~?)의 『남천록南遷錄』, 이증(李增, 1628~1686)의 『남사일록南槎日錄』, 이원조(李原祚, 1792~1872)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탐라록耽羅錄』·『탐라계록耽羅啓錄』·『탐라관보록耽羅關報錄』, 신광수(申光洙, 1712~1755)의 『탐라록耽羅錄』,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속음청사續陰晴史』, 정운경(鄭運經, 1699~1753)의 『탐라문견록耽羅聞見錄』 김석익(金錫翼, 1885~1956)의 『탐라기년耽羅紀年』 등이 전한다.[17]

이강회가 어떠한 경위로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탐라직방설』을 짓게 되었는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강진에서 양제해 옥사獄事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점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 제주도는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다.[18] 특히 강진은 '탐진耽津' 즉 '탐라耽羅의 나루'라고 불릴 정도로 제주도와 관계 깊은 지역이었고,[19] 그가 잠시 거처했던 흑산도黑山島에서 보더라도 흑산도, 추자도楸子島, 제주도濟州島가 일종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던 해양도서海洋島嶼라는 점에서 이강회는 평소 제주도에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던 차에 우이도에 유배 온 김익강金益綱을 만나 그로부터 제주도의 여러 이야기들과 양제해 옥사, 상찬계에 대해서 들은 후 제주도에 대한 지리지를 본격적으로 구상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

17) 제주도 관련 자료들은 고창석,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270쪽을 참조했으며, 『탐라문견록』은 최근 번역·소개되었다.(정운경 지음, 정민 옮김,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18) 이강회는 자신의 집이 강진에 있어 양제해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耽羅職方說』 卷2, 「相贊契始末」, '梁濟海傳' 참조.

19) 『光海君日記』 卷59, 光海君 4年 11月 16日(丙午) ; 『正祖實錄』 卷39, 正祖 18年 3月 8日(乙未) ; 「耽津對」(『與全』 1集, 22卷, 19). "耽津者, 耽羅之津, 瘴癘之鄕, 罪人所徙."

『탐라직방설』의 저술시기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1819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가 1818년에서 1819년경에 우이도에 거처할 때 제주도에서 유배 온 김익강이라는 인물을 만났고 그로부터 양제해 옥사의 전말과 상찬계에 대해서 전해 듣고 이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권1의 제주도의 지리현황은 그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그가 어디에서 『탐라직방설』을 지었는지도 의문이다. 제주도를 직접 답사했는지, 아니면 우이도나 강진에서 저술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탐라직방설』 권1과 권2 첫머리에 있는 '北海 李綱會 輯'과 '海北 李綱會 著'가 이 문제를 푸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는 있다. 일찍이 정약용은 책을 지을 때 현재 자신이 거처하는 지명을 이름 앞에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20] 만약 이강회가 이 가르침을 충실히 지켰다면 '북해北海'와 '해북海北'은 그가 『탐라직방설』을 지었던 지역일 수 있다.[21] 그것은 구체적인 '지명'이거나, 아니면 제주도 북쪽 바다의 의미로서 강진과 같은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같은 곳을 '북해'와 '해북'과 같이 두 가지로 표기했는지, 아니면 각각 다른 지역인지도 의문이다. 현재 '북해'나 '해북'이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아 아마도 제주도 바다 북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될 뿐이다.

---

20) 「答兩兒」(『與全』 1集, 21卷, 20). "中國人撰書錄名, 竝主時居, 非稱姓貫. 如秀水朱彝尊, 家在秀水, 會稽張介賓, 家在會稽. 我邦不知此例, 月沙稱延安李某, 湖洲稱平康蔡某皆誤. 自今著書鈔書, 汝輩亦稱洌水丁某可也. 洌水二字, 示之天下, 旣足標別, 覈以鄕土, 亦甚親切."

21) 참고로 이강회는 그의 저작들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자명을 표기했다. 中國人 施洪量과 대담한 내용이 담겨있는 『玄洲漫錄』에는 '朝鮮 李綱會'로, 『雲谷雜槧』 「車說答客難」에는 '擊磬子 著'로, 『雲谷雜槧』 「方諺補」에는 '漢山 李綱會'로, 『勿欺堂要纂』에는 '漢南 李綱會'로 썼다.

2)『탐라직방설』의 구성과 특징

『탐라직방설』은 일본 경도대京都大 가와이(河合) 문고 소장본으로 필사본이다. 이 저작에는 「청림동기靑林洞記」와 「현주만록玄洲漫錄」이라는 글이 『탐라직방설』과 함께 실려 있다. '운곡총서雲谷叢書'라는 이름이 표지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글들은 총서叢書로 묶여 있던 저작들이라고 생각된다. 『탐라직방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권1은 제주도의 일반적인 지리현황을 정리한 것이며 권2는 「상찬계시말」로서 제주도의 이서吏胥 친목조직인 '상찬계'의 폐해를 기록한 글이다.

이강회는 『탐라직방설』 권1에서 제주도의 지리현황을 크게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앞서 '北海 李綱會 輯'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이강회가 기존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일종의 '편집編輯' 형태의 글임을 알 수 있다. 그는 각 항목의 대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뒤에 한 줄을 낮추어서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실들을 적어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은 '안案'의 형식을 빌어 기록하였다. 그가 '안案'으로 정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에 관한 입장과 생각들을 접할 수 있다.

이강회가 『탐라직방설』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주도의 일반적인 지리현황을 개관하였다. ② 행정, 군사 문제와 관련한 속현屬縣, 진방鎭防, 군軍, 목牧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③ 제주도의 항구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④ 봉수烽燧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⑤ 상대로上臺路와 하대로下臺路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⑥ 교육시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⑦ 불우佛宇와 신사神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⑧ 유람지로는 백록담白鹿潭, 장월담漿月潭, 용연지龍演池, 산방악山方岳, 김녕굴金寧窟이 있다고 하였다. ⑨ 창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⑩ 사상私商으로 출입하는 배는 엄히 살피니 화북잔禾北鎭에서 검열한다고 하였다. ⑪ 마지막 부분에는 지산地産, 해산海産, 약산藥産, 농업農業, 홍업紅業, 상리商利 항목을 나누어 제주도의 물산을 기록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탐라직방설』은 '편집'에 가까운 글이다. 따라서 『탐라직방설』에서 독창성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강회가 『탐라직방설』을 지을 때 주안점을 두고자 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그는 상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시했다.

첫째, 『탐라직방설』에는 『주례』에 입각한 경세의식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탐라직방설』에서 '직방'이라는 명칭 자체가 『주례』의 「직방」에서 나왔다. 저작 곳곳에서도 『주례』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보인다. 가령, 제주도의 군제軍制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주에는 12,500인의 일군一軍이 있는데 이는 『주례』의 12,500명을 군軍이라 하고 왕은 6군軍, 대국은 3군軍, 다음 나라는 2군軍, 소국은 1군軍이라는 법에 비추어 볼 때, 탐라의 옛 제도가 『주례』를 모범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하였다.[22] 또한 산둔山芚의 유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중고中古에 김모金某가[23] 말 1천 필을 길러 나라에 바쳤고 이에 세 목장을 산에 설치하여 대대로 목감牧監의 직職을 세습하였던 사실을 이강회는 『주례』의 '이목득민以牧得民'의 실효라고 특기하였다.[24]

둘째, 군사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강회는 제주도의 진방鎭防, 봉수烽燧 등에 대해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군사적인 측면과 관련된 언급들을 많은 부분 서술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그가 주목한 제주도의 지리적

22) 『耽羅職方說』 卷1. "案, 大司馬, 制軍之法, 萬有二千五百人爲軍, 王六軍,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 今聞濟之置軍, 乃倣周制意者, 耽羅古制, 本倣周禮仍以襲之者也."

23) '金某'는 광해군과 인조대 조정에 말을 바친 金萬鎰(1550~1632)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光海君日記』 155卷, 光海君 12年 8月 15日(庚申) ; 『光海君日記』 卷156, 光海君 12년 9월 4일(戊寅) ; 『仁祖實錄』 卷16, 仁祖 5年 7月 2日(丙寅) 기사가 참조된다.

24) 『耽羅職方說』 卷1. "其山場, 上曰上鍼場, 中曰中鍼場, 下曰甲馬場<在旌義境>. 中古有金<闕其名>養馬千匹以貢于國, 仍置三場, 以金氏世襲牧監之職. ○案, 此乃周官, 以牧得民之實效也. 如金氏者, 功不下於秦非矣."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그는 한라산을 천하의 요새로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그 산의 형태는 비구의 바리때와 똑같다. 사방은 산록山麓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이는 뻗어나가서 산채山砦가 되어 바다 속으로 흘러 들어가 20~30리에 이른다. 그 형태가 지네의 다리와 똑같아서 몽충蒙衝과 대함大艦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험險함을 업고 안을 견고히 하여 스스로를 수비하면 외적外敵이 안으로 위협할 곳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천참天塹의 땅인 것이다.[25]

한라산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항구 또한 천하의 요새라고 하였다. 그는 제주도의 항구들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제주도는 여울이 낮고 항구가 협소하여 배를 나란히 하고 들어갈 수 없는 까닭에 적이 엿볼 수 없는 천혜의 요새가 된다고 하였다.[26] 하지만 제주도에는 전선戰船과 수군水軍이 없고 오직 사선私船만이 있다고 하여,[27] 지리적 조건에 상응하는 군사적 방비가 있어야 함을 시사示唆 했다.

이강회는 제주도의 강역을 분명히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해로海路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안 되니 항구들을 제주도의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록한다고 하였다.[28] 가령, 제주성濟州城 동쪽으로부터 화북포禾北浦까지 거리가 10리, 화북禾北 동쪽으로부터 10리 떨어진 거리에 조천포朝天浦, 조천朝天 동쪽으로부터 15리 떨어진 거리에

25) 『耽羅職方說』 卷1. “其山形正如鉢會, 四圍山麓, 走爲山砦, 流入洋中, 至三二十里. 其形正如蜈蚣之足, 蒙衝大艦, 無由翼入. 故負險內固, 以自守備, 外敵無處內逼. 此眞天塹之地也.”

26) 『耽羅職方說』 卷1. “其船泊之所灘淺, 港狹不可方舟竝入. 故濟之所以爲天塹, 而敵不能外闖者也.”

27) 『耽羅職方說』 卷1. “濟無戰船, 惟有私船 … 濟雖海國, 本無兵船, 又無水軍”

28) 『耽羅職方說』 卷1. “明審海州之疆域者, 不知外入之海路, 則不可曰知也. 玆採泊港分州之東西, 錄之如左”

북포北浦, 북포北浦 동쪽으로부터 20리 떨어진 거리에 금녕원金寧院, 금녕金寧 동쪽으로부터 10리 떨어진 거리에 어등포魚登浦, 어등포 동쪽으로부터 5리 떨어진 거리에 무등포無登浦, 무등포 동쪽으로부터30 리 떨어진 거리에 별방포別防浦 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이강회가 가지고 있었던 방위防衛 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밖에도 제주도의 진鎭에는 모두 성城이 있고 성城에는 군로軍路가 있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니 (다른 지역들이) '어찌 제주도에 부끄럽지 아니하겠는가' 하면서 제주도의 성제城制 를 높이 평가하였다[29] 앞서 언급했듯이 이강회는 제주도의 군제軍制도 『주례』를 모범 삼은 것으로 평하였다.

이러한 언급들은 「비어고備禦考」와 「민보의民堡議」에서 보였던 정약용의 국토방위國土防衛 의식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은 19세기 초반 불안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허울뿐인 군사체제를 개선하고자 민보民堡를 적극 제안하였다. 이는 산성山城을 거점으로 하는 향촌 사회의 자립적인 방어체계로서 고대古代 이래의 전통적 병법인 '거험청야지법據險淸野之法'에 근거하고 있었다.[30] 이강회가 앞서 인용문에서 '험險함을 업고 안을 견고히 하여 스스로를 수비하면[負險內固 以自守備]'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은 천혜의 요새로서 견고한 방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자연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강회 또한 민보民堡의 관점에서 제주도를 주시하지

29) 『耽羅職方說』 卷1. "鎭皆有城, 城制比州, 皆有軍路. ○案, 我國諸州, 未嘗置城上軍路, 此豈非濟之所羞乎."

30) 丁若鏞의 民堡議에 대해서는 정경현, 「19세기 새로운 國土防衛論」, 『韓國史論』 4, 1978, 338~355쪽 ; 정하명·이충진, 「丁若鏞의 軍事防衛體制와 民堡議」 『軍史』 3, 1981 ; 신대진, 「朝鮮後期 實學者의 國防思想 硏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115~140쪽 ; 조성을, 「丁若鏞의 軍事制度 改革論」, 『京畿史學』 2, 1998, 151~153쪽 ; 김우철,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경인문화사, 2001, 242~244쪽 ; 서태원, 「朝鮮後期 實學者의 防禦體制改革論」, 『실학사상연구』 28, 2005, 48~52쪽 참조.

않았나 생각된다.

셋째, 이강회의 사회 비판 의식을 들 수 있다. 열 번째 항목에서 이강회는 사상私商으로 출입하는 배는 엄히 살피니 화북잔禾北鎭에서 검열한다고 하였다.[31] 그는 제주도 관리들이 물고기를 잡는 배는 그 잡은 물고기로써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외부 상선商船들은 매 선船마다 15승포升布 1필匹을 거두어들인다고 하였다. 또한 유배 온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화북진에 들어온 후 이들에게 백금百金의 뇌물을 바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강회는 안案을 통해서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왕정王政이 아니며, 죄인의 자식은 비록 출입出入을 살피기는 해야 하지만 뇌물을 받는 것은 말속末俗의 폐단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한 비판의식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

> 이는 하나의 커다란 폐단이다. 내상內商이 배를 끌고 수 삼백 리의 연안 바다를 배회하는 것은 왕정王政이 아니다. 외선外船에게서 계구計口하여 세금을 받아내는 것은 왕정王政이 아니다. 죄인의 자식은 비록 출입出入을 살펴야 하지만 뇌물賂物을 받는 것에 이르는 것은 말속의 폐단이다. 한 탐욕스러운 아전의 몸을 배불리는 것은 이미 상고商賈의 큰 원망을 부르는 것이요 또한 골육骨肉의 은정恩情을 막는 것이니 어찌 말이 되는가![32]

이것과 관련해서 이강회는 「상찬계시말」에서 이러한 일들이 제주도 아전들의 조직인 상찬계로 말미암아 발생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였다.

---

31) 『耽羅職方說』 卷1. “其私商出入之船, 嚴立幾征, 皆泊闕于禾北鎭然後, 乃得出外”

32) 『耽羅職方說』 卷1. “此一大弊也. 內商之曳舟渡洄于數三百里之海沿者, 非王政也. 外船之計口收稅者, 非王政也. 罪人之子, 雖幾出入, 然至於受賂者, 亦末俗之敝也. 肥一貪吏之體, 旣招商賈之大怨, 又防骨肉之恩情, 是豈成說乎.”

> 만약 국가가 수백 척의 배를 영조榮造하여 법法을 세우되 마치 번박番舶을 위하여 달량부達梁府에 설시設市하고 사상私商을 금지한 법과 같이 하면 단지 저 무리들이 농간을 부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백골징포白骨徵布보다 도리어 나은 것이 있고 가난한 농민들로부터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있을 것이다. 상홍양桑弘羊과 왕안석王安石은 비록 이利를 말한 소인小人이라고 일컬어지기는 하나 그 뜻은 대개 부세賦稅를 함부로 걷고자 하지 않은 것에서 나왔다. 어찌 한스럽지 않으랴![33]

이강회는 달량부의 경우처럼 국가가 제주도에도 설시設市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아전의 폐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해외무역의 특구를 설정하자는 것으로서 '마카오' 같은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4]

이 밖에 제주도 환곡還穀의 폐단도 적었다. 이강회는 별저곡別儲穀 만석萬石이 있어 백성들의 대폐大弊가 되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별저곡은 원래 정조正祖가 흉년을 대비하여 항시 만석을 비축하도록 한 것이었으나 이것이 점차 폐단을 일으켜 10년 사이에 백성들이 명목 없이 낸 것이 수십만 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민臣民으로서 감히 이것을 고치자고 말하는 자들이 없었는데, 기사년(1809, 순조 9) 남해변의 대기근 때 순조가 별저곡을 옮겨 내민內民을 구휼하라는 명이 있자 자연스럽게 별저곡은 없어졌다고 하였다.[35] 본래 별저곡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제

---

33) 『耽羅職方說』 卷2, 「相贊契始末」. "若自國榮造數百, 立法如番舶之爲設市於達梁之府, 禁私商之法, 非但彼隊不得售奸, 在國家, 顧有愈於白骨之掊布, 顧有愈於殘佃之掊粟矣. 弘羊安石, 雖云言利之小人, 其志盖本於賦不欲橫出稅不欲橫徵也. 寧不恨哉!"

34) 임형택, 앞의 논문, 2006, 97~98쪽 참조.

35) 『耽羅職方說』 卷1. "惟我先王每日南顧綏遠之策, 俾盡其方. 其後丙丁戊己庚五年, 連値大豐際是穀賤之時, 特命濟伯別備萬石米名之曰別儲穀. 若値比前甲乙之大凶, 元還盡分, 外粟未到, 須開別儲之庫以賑之. 聖敎如是懇惻, 故別儲之米, 所重自別. 於是以精穀極品之米納之, 而別米萬石分三次, 三年一改色, 以爲捄定不易之法. 米在庫中, 經

주도 3읍의 진자賑資를 위해 1799년(정조 23)에 설치한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이의 취모 행위를 통해 관아재정을 보용하고 있었다.[36] 하지만 이는 각종 폐해를 낳았고 제주도 민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듯하다.

조선후기 제주도에 대한 관심은 여러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기본적으로는 공마貢馬와 귤橘을 양산하는 지역으로서의 관심이 컸고 이는 가장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주도는 유배 온 사람들에 의해서 제주도의 기이한 풍속들이 세상에 전해지기도 하였고, 표도漂到한 박연朴淵(延: Weltevree), 하멜 등 외국인들로 인해서도 관심 받는 지역이었다[37] 여기에 더하여 중국 강남과 연계하여 군사·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특히, 17세기는 아직 청나라가 중국 강남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고 정성공(鄭成功, 1624~1662) 등이 대만을 거점으로 항쟁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도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군사·외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주도의 상황을 잘 보여준 이는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이었다. 이단상은 제주목사로 떠나는 이인(李嶜, 1608~1668)에게 제주도가 중국 강남지역과 가까우니 한라산에 올라서 보면 중국 강남과 해외의 나라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강남의 한족漢族 소식에 관심 가져줄 것을 부탁하였다.[38] 이는 제주도가 강남에서 벌어지는 한족

過三歲, 雀鼠蠹蛾, 耗縮已半, 極南烝濕, 歲月以腐. 於是一石之米簸, 無一粒之可哺. 十年之間, 民之日納數十萬石<耗上加耗之故也>. 其爲弊, 雖甚如此, 然臣民之不敢開口言罷者, 伏念聖意之本出救荒也. 逮于己巳, 南沿大饑, 自上特命船移別儲之穀, 賑賙內民. 故濟之大弊, 自祛無有."

36) 이에 대해서는 권인혁,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實狀과 그 性格」, 『耽羅文化』 7, 1988, 132쪽 참조.

37) 『孝宗實錄』 卷11, 孝宗 4年 8月 6日(戊辰).

38) 李端相, 『靜觀齋集』 卷14, 「寄濟州牧使李侯序」. "夫耽羅邈在南海中地, 近江南之吳越, 今我李候或可因此而得聞天上消息耶. … 聞耽羅有漢拏山者, 其高可以俯臨南極云. 李候於暇日, 試登其頂而望焉, 則向所謂江南之某地某地, 海外之某國某國, 擧在眼底."

들의 저항 운동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의미였다. 이와 함께 효종孝宗과 현종대顯宗代 제주도에 표류해온 한족漢族들의 처리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기도 하는 등[39] 제주도는 명청교체 직후 중국 강남과 가깝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8세기 들어 청조淸朝의 안정으로 이러한 제주도의 이미지는 점차 사라져갔다. 후기로 올수록 제주도는 흉년과 관련해서 구휼의 대상으로 기록에 많이 등장하였고 흑산도, 추자도와 함께 유배지로 유명했다. 또한 이것과는 구분되게 제주도는 남방문화가 교차하는 역동적인 장소이기도 하였다. 즉 제주도에 표류해 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해외에 표류漂流한 제주 사람들을 통해서 해외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였던 것이다. 18세기에 정운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탐라문견록』에는 다양한 해외 경험을 한 인물들의 흥미롭고 기이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고, 이는 이익(李瀷, 1681~1763),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서유구(徐有榘, 1764~1845), 황윤석(黃胤錫, 1729~1791), 유만주(兪晩柱, 1755~1788) 등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널리 읽혔다.[40]

이러한 해외 경험은 '기이한 이야기' 차원을 넘어서 조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이 될 수도 있었다. 그들의 견문 중에는 조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들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를 증명한 이들이 19세기 전반 이강회와 문순득이었다. 우이도 주민 문순득은 1801년 12월 홍어洪魚를 사러갔다가 표류해서 1805년 1월 다시 우이도로 돌아오기까지 만 3년 2개월 동안을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

39)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孝宗實錄』 卷8, 孝宗 3년 3월 30일(辛丑) ; 『孝宗實錄』 卷8, 孝宗 3年 4月 26日(丁卯) ; 『顯宗實錄』 卷14, 顯宗 8년 6월 21일(甲午) ; 『顯宗實錄』 卷14, 顯宗 8年 6月 23日(丙申) ; 『顯宗實錄』 卷14, 顯宗 8年 10月 2日(癸酉); 『顯宗實錄』 卷14, 顯宗 8年 10月 3日(甲戌).

40) 정운경 지음, 정민 옮김, 「서설-18세기 한 인문주의자의 제주 르포」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20~24쪽 참조.

오, 중국 강남, 북경을 둘러보았다. 이강회는 이러한 문순득의 표류담을 듣고 조선의 배를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곡선설」을 지었다.[41] 「운곡선설」에는 이강회가 탔던 여송呂宋(필리핀 루손) 배의 구조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강회에게는 문순득의 수많은 기이한 체험보다는 실용적인 배의 이야기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했던 것이다.[42]

이강회가 주목했던 제주도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이강회에게 제주도는 기이한 풍속과 이야기 거리가 있는 단순한 흥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대로 경세經世와 통치統治의 대상이었다. 『탐라직방설』 서두에서 이강회가 언급했던 『주례』 직방의 문제의식과 본문 곳곳에서 보이는 강한 방위防衛 의식에서 그가 사유한 제주도를 엿볼 수 있다.[43] 그가 제주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바라본 것은 19세기 불안한 국내외 정세와 정약용의 국토방위國土防衛 의식의 영향이 있었다.

홍경래洪景來 난亂 이후 처한 조선의 불안한 정세는 정약용으로 하여금 국토방위에 관심 갖게 하였다. 정약용은 홍경래 난이 있은 직후 「민보의民堡議」를 저술하면서 홍경래 난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에 주목하였다. 홍경래 난으로도 이렇듯 민심이 동요하면 외적의 침입에는 얼마나 민심이 흔들리까 하는 우려였다.[44] 이러한 상황에서 정약용은 「민보의」를 지어 자립적인 향촌 방어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강회 또한 정약용의 이러한 문제의식에 영향을 받아 남쪽 연해변의

---

41) 李綱會, 『柳菴叢書』, 「雲谷船說」 참조.

42) 참고로 『玄洲漫錄』에서도 李綱會는 중국인 施洪量과의 대화에서 기이한 것들이 많았지만 오직 實用的인 것만을 기록한다고 하고서 선박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적었다. 『玄洲漫錄』 卷1. "惟施洪量一人粗解文字 … 余乃把筆答話, 自是往來連日, 頗多異觀, 然只擧其實用措行者, 畧錄如右."

43) 이러한 海防 의식은 정조대 제주목사를 지낸 沈樂洙 (1739~1799)에게서도 보였다. 그는 제주도가 大阪, 江戶, 福建, 江南島 등의 중계요지로 인식하면서 군사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正祖實錄』 卷39, 正祖 18年 3月 8日(乙未).

44) 丁若鏞, 『與猶堂全書補遺』 三, 경인문화사, 1989, 336쪽.

불안한 정황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전라도의 도서島嶼 가운데 가장 전략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인 제주도濟州道에 주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가 제주도의 군사적인 측면과 「상찬계시말」에서 제기된 향리鄕吏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데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45] 이 지역도 평안도처럼 사족층이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수령과 향리층의 횡포가 심한 곳이었다. 즉 홍경래 난과 같은 위험적 요인들이 내포된 지역이었던 것이다.

3. 「상찬계시말」을 통해서 본 양제해 모변사건

1811년(순조 11) 일어난 홍경래 난은 세도정권에 대한 민중층의 대응이라는 시각에서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46] 이후 일어난 19세기 전반 여러 민란들도 홍경래 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주목받은 것이 1813년 순조13) 제주도에서 일어난 양제해의 난亂이었다. 양제해 난은 홍경래 난과 시기적으로도 매우 가까워 그 역사성을 일찍부터 주목받았고, 1898년 방성칠房星七의 난, 1901년 이재수李在守의 난과 함께 19세기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란으로 손꼽혔다. 양제해 모변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순조실록純祖實錄』과 『일성록日省錄』에

45) 『耽羅職方說』 卷2, 「相贊契始末」. "濟者天塹內固之地也. 彼輩之驕奢陰泆, 極於所至, 則必生太濫, 西州之多福洞, 卽耽邑之相贊契也"

46) 洪景來 亂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오수창, 「19세기 초 중국 八卦教亂과 洪景來亂의 정치적 특성」, 『大東文化硏究』 56, 2006 ; 吉川友丈, 「洪景來の亂における反亂主導部の戰略と意識 -その組織形成の實態を手がかりに一」, 『朝鮮學報』 166, 1997 ; 오수창 「洪景來亂 봉기군의 최고지휘부」, 『국사관논총』 46, 1993 ; 오수창, 「홍경래 난의 주도세력과 농민」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 황패강, 「한문소설 홍경래전 연구」, 『동양학』 18, 1988 ; 정석종, 「洪景來亂과 內應勢力」, 『嶠南史學』 1, 1985 ; 정석종, 「홍경래난의 성격」, 『韓國史硏究』 7, 1972.

그 전말이 상세히 실려 있다.[47]

실록기사를 살펴보면 순조純祖 13년 12월 3일(丙申)에 제주목사 김수기金守基는 급히 제주도의 모변 사건을 보고했다. 내용은 제주목濟州牧 중면中面 사람 풍헌風憲 양제해가 홍경래 난을 듣고서 모반을 도모한지가 오래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부역이 무거워 살 수 없다는 것을 핑계로 김익강, 고호덕高好德, 강필방姜必方 등과 함께 당월 16일에 거병擧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신고한 이는 양인良人 윤광종尹光宗 이었다. 순조는 이를 비변사에 내려 품처稟處하게 하였다.[48] 바로 다음날 비변사는 양제해를 잡아 사실을 모두 자백 받았음과 수습 차원에서 안핵겸위유사按覈兼慰諭使 를 파견하여 제주도민을 달래야 함을 아뢰었다.[49] 이에 영의정 김재찬(金載瓚, 1746~1827)이 이재수(李在秀, 1770~1822)[50]를 제주찰리겸위유사濟州察理兼慰諭使로 파견할 것을 건의하였고 순조도 이를 따랐다.[51]

다음해인 1814년 윤2월 14일(丙子)에 제주찰리사 이재수는 양제해 모변 사건에 관한 장계狀啓 를 올렸다. 이 장계에서 이재수는 양제해가 섬 안의 품관으로서 뜻을 같이 하는 자들과 함께 세 고을의 수재守宰를 모해하고 배를 엎어버리고 재물을 빼앗고 육지와의 길을 막으려는 생각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모반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죄의 경중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여 처벌하였음과 윤광종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조처가 있어야 함을 조정에 아뢰었다.[52] 또한 바로 이어 이재수는 제주목사 김수기가 죄수들을 문초할 때 심한 고문을 가해 양제해가 죽어 조정의 법으로서

47)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권인혁, 앞의 논문(1988)이 참고 된다.
48) 『純祖實錄』 卷17, 純祖 13年 12월 3日(丙申).
49) 『純祖實錄』 卷17, 純祖 13年 12月 4日(丁酉).
50) 이재수는 연안이씨 李廷龜(1564~1635)의 후손으로서 조부는 李天輔(1698~1761)였다. 1809년(순조 9) 별시 문과에 갑과로 합격하고, 홍문관응교·경상도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51) 『純祖實錄』 卷17, 純祖 13年 12月 5日(戊戌).
52) 『純祖實錄』 卷17, 純祖 14年 閏2月 14日(丙子).

처형할 수 없게 하였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고초를 당한 것, 수뢰受賂 등을 들어 김수기를 파출罷黜 할 것을 아뢰었다.[53]

『일성록日省錄』에는 좀더 상세하고 풍부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특히 실록實錄과 비교해서 흥미로운 것은 양제해가 거사에 성공하면 마땅히 도주島主가 될 것이라고 한 것과,[54] 이재수가 상찬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조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55] 도주島主가 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제해의 모변 의도가 별국別國 건설에 있었고 상찬계에 대해서도 도내 권력과 관계된 관인배官人輩들의 작계作契가 아닌가 하는 기존 연구가 있었다.[56] 결론적으로 『순조실록』과 『일성록』이 보여주는 양제해 옥사는 제주도민 양제해가 부세 수취 등에 불만을 품고 '관장官長 타살打殺'을 통한 별국別國 건설'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후 이루어진 양제해 모변 사건에 대한 연구에서도 『순조실록』, 『일성록』에 의존한 관계로 양제해 사건의 전말은 관찬 자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57]

그러나 이것과는 다른 어감을 주는 기록이 존재했다. 제주도민 김석익은 1918년에 출간한 『탐라기년』에서 양제해 옥사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순조 십삼년 겨울 토교土校 윤광종은 양제해가 난亂을 일으키려 모의하려 한다는 것을 고하였다. 목사 김수기는 체포하여 아뢰었다. 이때 간리奸吏들이 용사用事하여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는 자들이 많았다. 양제해와 윤

53) 『純祖實錄』 卷17, 純祖 14年 閏2月 14日(丙子).
54) 『日省錄』 卷340, 純祖 13年 12月 3日(丙申). "若成此擧, 則吾當爲此島主耳."
55) 『日省錄』 卷344, 純祖 14年 閏2월 14日(丙子). "至於相贊作稧, 賦役濫徵等事, 必有宿弊之成痼, 竟致無前之變怪, 謹當詳細採實, 追于登聞計料."
56) 권인혁, 앞의 논문, 1988.
57) 김태능, 「梁濟海亂과 濟州民의 自主企圖」, 『제주도』 34, 1986, 151~156쪽 ; 권인혁, 앞의 논문, 1988 ;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도사』, 휴머니스트, 2005, 262~264쪽.

광종 등은 사사로이 의론하여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윤광종은 그 모의를 간리배들에게 누설하였고 마침내 고변告變하여 양제해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그 친당親黨 수십 인이 옥사獄事와 관련되어 형국刑鞫을 받았다.

(순조) 십사년 봄 정월 찰리어사 이재수를 파견하여 양제해 부자를 주살하고 여당은 모두 해도海島에 유배 보냈다. 목사 김수기는 죄인 일곱 명이 경폐徑斃당한 일로써 파면되었다.

사씨史氏는 말한다. 양제해 옥사獄事는 사람들이 모두 윤광종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지 김지검金之儉이 주장한지는 알지 못하니 무엇 때문인가! 섬사람들은 시비에 어두워서 겨우 수십 년 이목耳目이 미치지 못하자 현우사정賢愚邪正을 대개 알 수 없게 되었으니 한탄스럽다. 그러나 그 옥사가 이루어짐에 미쳐서 윤광종은 공功으로 명월明月 만호萬戶 자리를 상賞으로 받아 스스로 득계得計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말에서 떨어져 죽었고 성城 옆에 장사지냈는데, 성城이 또한 붕괴되어 그것을 덮어 버렸다. 김지검은 비록 형벌을 면하였지만 자손들은 간오奸誤로써 죽었으니 아! 천도天道가 쇠퇴하지 않았구나. 후래後來의 소인小人들에게 감계鑑戒가 될 수 있을 것이다.[58]

이 기록은 『순조실록』과 『일성록』에 쓰여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언뜻 보면 흡사한 듯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양제해가 별국別國을 건설하려고 모변謀變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간리奸吏들의 폐해로 인해서 양제해가 윤광종 등과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였고, 이 계획을 윤광종이 간리들에게 누설하자 간리들이 마침내 고변하여 양제해가 죽음을 당한 것으로 서술

58) 金錫翼, 『耽羅紀年』(1918, 瀛洲書館) 卷4, 96~97쪽. "純祖十三年冬, 土校尹光宗, 告梁濟海謀作亂, 牧使金守基, 逮捕以聞. 時奸吏用事, 民多怨讞, 濟海與光宗等, 私議欲除之. 光宗以其謀泄於奸吏輩, 遂先告變, 逮捕濟海及其親黨數十人, 繫獄刑鞫. 十四年春正月, 遣察理御史李在秀, 來誅濟海父子, 餘黨皆配于海島, 牧使金守基, 以罪人七名徑斃事坐罷. 史氏曰, 濟海之獄, 人皆知出於尹光宗, 而不知金之儉之主張者, 何哉! 島人暗於是非, 纔過數十年耳目所不及, 則賢愚邪正, 類不能知, 可勝嘆哉! 然及其獄成, 光宗以功受賞明月萬戶, 自以爲得計, 未幾墜馬而死, 殯于城側, 城又崩陷而壓之, 之儉身雖獲免, 而其子若孫, 竟以奸誤死. 噫! 天道之不替, 足以戒後來之小人哉."

되어 있다. 그리고 김석익은 사씨史氏의 말을 통하여 윤광종, 그리고 김지검이라는 인물을 소인배로서 고발하였다. 이 기록은 다음에서 살펴볼 「상찬계시말」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양제해 모변 사건에 대해서 이강회는 중요한 증언을 남겼다. 이것이 『탐라직방설』 권2에 실려 있는 「상찬계시말」이라는 기록이다.

> 이 편은 직방職方과는 무관하지만 이것은 제주도의 대옥大獄이었던 까닭에 대략 들은 바를 기록하여 군자君子의 정필正筆을 기다린다. 대저 이미 뼈가 되어버린 원혼冤魂들의 원한을 설령 풀 수 없을지언정 아직 깨지지 않은 계굴契窟(相贊契)이 불어나게 할 수는 없다. 제주도는 천참내고天塹內固의 땅이다. 저들의 교사음일驕奢陰泆함이 지극해진다면 반드시 크게 무람한 일을 저지를 것이다. 평안도의 다복동多福洞은 제주도의 상찬계이다. 대저 남읍南邑 아전들의 강함은 제濟나라의 전씨田氏와 노魯나라의 환씨桓氏보다 심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제주도의 상찬계는 나의 커다란 근심이다.[59]

이는 이강회가 「상찬계시말」을 『탐라직방설』 후미에 싣는 이유를 밝힌 글이다. 「상찬계시말」은 19세기 전반 양제해 옥사를 재조명할 수 있고, 정약용이 『목민심서牧民心書』에 펼쳤던 아전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계승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60] 「상찬계시말」은 크게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초반부에 7단에 걸쳐서 상찬계의 대략을 기술하였다. 첫째, 상찬계의 발생, 둘째 상찬계의

---

59) 『耽羅職方說』 卷2, 「相贊契始末」. "此編, 無關職方, 然此爲州之大獄. 故畧以所聞者記之, 以俟君子之正筆. 夫旣骨之寃魄, 縱不得伸, 未破之契窟, 不可滋也. 濟者天塹內固之地也. 彼輩之驕奢陰泆, 極於所至, 則必生太濫, 西州之多福洞, 卽耽邑之相贊契也. 大抵南邑之吏强, 殆猶甚於齊田魯桓者, 厥已久矣. 濟之相贊契, 是吾之大憂也."

60) 이강회는 전라도의 아전 친목조직들의 병폐를 한탄하였다. 『耽羅職方說』 卷2, 「相贊契始末」. "吾嘗恨南吏相贊之法曰, 不出十年, 民其盡爲吏俎之物乎! 豈意海州又出來此法乎! 不幸哉! 南之民也, 不幸哉! 南之民也."

부정 방법, 셋째 상찬계의 수령 포섭, 넷째 상찬계의 수령 매수, 다섯째 상찬계가 상선商船에게서 뇌물을 받는 방법, 여섯째 상찬계 인원들의 부귀, 일곱째 양제해 옥사와 상찬계 조사 실패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기록하였다. 이후 상찬계와 양제해 옥사에 관련된 이도철李道喆, 양제해, 김익강, 이재수李在秀, 윤광종, 김재검金載儉의 인물들에 대해서 전傳을 남겨 각 인물들을 평가하였다. 「상찬계시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에는 1790년과 1791년 어간에 이서배들에 의해서 사적인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상찬계라고 하는 것이었다. 상찬계는 서로 찬조하여 돕는다는 뜻으로 아전들의 친목 조직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는 어느 한 아전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그는 이吏는 '이理'인데, 어찌 종신終身토록 일하고서도 이리도 곤궁한가 하면서 300명의 아전을 묶어 상찬계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전錢을 신神으로 칭하면서 온갖 민폐를 일삼기 시작했다.

제주도민들은 지리적 조건과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과시科試를 통한 중앙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재망才望이 있는 자는 향리층이 되는 것을 바라게 되었고,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리층의 규모와 위세가 강할 수밖에 없었다.[61] 제주도 아전들의 상층이 상찬계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커다란 규모를 가졌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62] 상찬계와 같은 대규모 향리층 조직이 폐단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상찬계로 인한 민폐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부세를 부여하지 않는 목전牧田과 콩밭에서 세금을 받고 각종 송사訟事에도 개입하여 돈을 받아내었다. 또한 제주도에 왕래하는 상선商船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익을 챙겼는데, 이러한 이익은 수령과 나누어 가졌다. 수령들도

61) 권인혁, 앞의 논문, 1988, 130~131쪽.
62) 권기중, 「19세기 濟州 鄕吏層의 戶口變動」, 『大東文化硏究』 57, 2007, 42~43쪽.

'제주도에 와 고생하면서 하나의 재산도 경영치 못하고 처자를 고생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상찬계의 계교에 빠져 자신의 본분을 잃고 백성들의 원망을 받게 되었다. 아전들은 심지어 수령이 부임하기도 전에 이미 서울과 전주에서부터 이들을 매수하여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는 아전들의 수령 매수 작업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점차 그들의 세력이 커지자 수령守令, 통인通引, 흡창吸唱, 방자房子, 군노軍奴, 사령使令, 나장挐長, 삼반장교三班將校 들까지 상찬계에 가담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었다. 이 상찬계는 1791, 1792 년에 비롯되어 1794 년 후에 크게 되었고 1812년, 1813년에 이르러 백성들을 학대함이 극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1813년 양제해 옥사가 터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강회는 양제해 옥사가 터지게 되었던 배경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는 양제해라는 인물이 상찬계의 병폐를 더 이상 참지 못해 몇몇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정에 소장을 올리려고 계획하다가, 이서배들에 의해서 오히려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양제해 옥사라고 하였다.

실제 『순조실록』에도 죄인들이 형을 받기 전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양제해 옥사가 무고誣告 사건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강회에 의하면 양제해의 장인 김익강의 심문 과정에서 찰리사 이재수는 상찬계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 계契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조사했지만, 결국 그 조직을 타파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강회는 후미에 이도철, 양제해, 김익강, 이재수, 윤광종, 김재검의 전傳을 통해서 양제해 옥사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그가 서술한 전傳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도철은 진무리鎭撫吏로서 사람됨이 청렴하고 강직하였다고 한다. 갑인甲寅(1794)년 이후 상찬계가 매우 번성하였는데, 이해 대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었다. 제주도에 차홍도車興道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세족世族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여식이 하나 있었다. 그는 세족이었으나 가난하여 뇌물을 낼 돈이 없어 결국 목자牧者로 강등되었다. 제주도법에 아무리 세족世族이라도 목역牧役에 들어가면 혼인婚姻도 목역으로 강등되었다. 제주도에서 목역은 가장 천賤한 역役 중의 하나였고 여식은 이를 부끄러워하여 자결하고 말았다. 이 일이 있자 이도철은, " 상찬계가 깨지지 않으면 결국 제주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고 하여 서울로 올라가 상찬계의 폐단을 밝힌 소장을 올렸다.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윗사람을 무고했다는 혐의로 고초를 당했다.

다음 해에도 이도철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 같은 소장을 올렸지만 예전과 같은 혐의로 고초를 당했다. 다음해에도 다시 소장을 올렸다 하지만 결국 매수당한 제주도 수령에 의해서 광패한 자로 몰려 제주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주와 영암 등지를 3년 동안 떠돌아야 했다 그 동안 이도철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유리걸식하였고 그를 원망하기에 이르렀다. 상찬계의 이서吏胥들은 이도철은 비록 우리들의 원수이지만, 후환後患이 없지 않으니 가족을 통해 그를 매수하자고 하여 이를 성사시켰고 결국 이도철은 상찬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강회는 안설案說을 통해 이도철은 기氣가 영장獰壯한 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호랑虎狼과 같은 무리들과 대적하여 세 차례 소장을 올릴 수 있었겠는가 칭찬하였다. 그러면서 훗날을 위해 일시 뜻을 굽혔던 이릉李陵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자신 또한 이도철에게 깊이 바라는 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도철이 이릉처럼 충심을 잃지 않고 상찬계의 병폐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양제해는 제주도의 향관鄕官으로서 양제해 옥사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1770년에 태어나 1813년에 화를 당하니 그의 나이 44세였다. 그는 사람됨이 공평함을 좋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향감鄕監, 방헌防憲을 차례로 역임하였으며 인망이 매우 두터웠다고 한다. 1813년 10월 그믐 취

회聚會가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서吏胥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서들의 간사함과 민폐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니 이와 같다면 백성들은 장차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방헌인 양제해가 나서서 상찬계를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였다. 양제해는 이를 수락하여 "내가 장차 백성들을 위해 한 번 죽으리라"는 다짐을 하였다고 한다.

그 모임에는 윤광종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상찬계의 우두머리 김재검金載儉[63]의 겸인傔人이었다. 그날 밤 윤광종은 김재검에게 달려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김재검은 양제해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이것이 긴급한 사태임을 인지하고 상찬계 인원들을 불러 모아 계책을 꾸몄다. 윤광종은 양제해가 변란을 도모했다는 소장을 만들어 이를 상찬계의 이서吏胥배들과 함께 수령에게 고하였다. 그날 밤 관원들은 양제해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체포하고 고문하였으며 이 와중에 양제해는 옥사獄死하였다. 사실 이는 상찬계가 미리 양제해의 입을 막고 그를 역모의 주도자로 정리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술책이었다고 한다. 찰리사 이재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양제해가 죽은 후였고 그가 변란을 도모한 것으로 조정에 보고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서 이강회는 자신의 집이 강진에 있어 양제해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가 일세一世의 항우項羽로서 팔진八陣의 법을 익히고 삼백여 필의 말을 키우고 총 수백 정과 궁시弓矢를 산처럼 쌓아놓았다는 등의 말들이 있었으나 사실을 조사한 결과 그의 집에는 한 필의 말과 부모 공양을 위해 사슴 사냥에 쓰던 낡은 총 한 자루가 있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강회는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건대 양제해에 대한 일은 모두 상찬

63) 각주 58)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석익은 고변한 인물로 윤광종 이외에 金之儉이라는 인물이 더 있음을 언급하였다(김석익, 『耽羅紀年』, 瀛洲書館, 1918, 97쪽). 아마도 김지검은 「상찬계시말」의 김재검과 동일 인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계가 꾸며낸 일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양제해 옥사가 있은 후로 4~5년 간 아전들의 민폐가 다소 진정되었으니 이는 분명 양제해의 공로가 아닐 수 없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오히려 폐족廢族이라고 부끄러워하면서 그의 친인척들과 혼인하기 꺼려하니 오랑캐 풍속이 어찌 이리도 지나친가 하며 한탄하였다.

김익강은 제주도에서 매우 명망 높은 향관의 후예로서 일반 남쪽 지방의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향관들과는 그 격을 달리하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는 양제해의 장인으로서 옥사에 연루되어 고초를 당했다. 옥사가 일어나자 상찬계는 김익강은 양제해의 장인이니 그를 그냥 놓아두면 후환이 없지 않다고 하여 그를 제거하고자 옥사에 연루시켰다. 김익강을 일찍 죽여 말을 막고자 하였으나 워낙 인망이 두터워서 옥졸들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지만 결국 우이도로 정배되었다. 정약전과 이강회가 우이도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순득에 의하면 김익강은 정약전(丁若銓, 1758~1816)과도 만났으며 정약전은 그를 보고 기이하게 여겨 심계心契를 맺었다고 한다. 이강회도 이러한 인연으로 김익강을 만났는데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칭찬하였다.

이찰리李察理는 이재수李在秀로서 그는 제주도에 와서 옥사를 매우 영민하게 처리하였던 까닭에 백성들로부터 마치 신선이 하강한 듯 하다는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뇌물을 써서 벼슬에 오른 인물들을 조사하여 처벌하였고 양제해에 대해서도 역적이 아니니 어찌 성姓을 쓰지 않겠는가 하면서 대민大民은 모두 성姓을 부르게 하고 소민小民은 양헌梁憲으로 칭하도록 하였다. 이강회는 그가 상찬계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뿌리는 뽑지 못했다고 하여 매우 안타까워했다.

윤광종은 김재검의 겸인傔人으로서 옥사를 고변告變한 자이다. 그 공功은 명월明月의 만호萬戶 감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성 밖의 막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며, 그의 처자도 병과 광증에 걸려 염斂해 줄 사람조차

없어 개의 먹이감이 되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이강회는 천도天道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후세 사람들이 감계鑑戒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윤광종이 문둥병으로 죽었다는 이강회의 진술은 앞서 김석익의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과는 구별된다.[64]

마지막으로, 김재검金載儉은 상찬계 가운데 가장 간사한 인물이라고 하였다. 그는 양제해 옥사를 실질적으로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제주도 법에 부이방副吏房은 신임 수령이 오면 자연 이방吏房으로 올라갔는데 전임 수령이 김재검의 사람됨이 간악함을 알아 김상빈金相彬이라는 인물을 이방으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김재검은 미리 서울로 올라가 신임 수령을 매수하여 이방이 되었고 이를 안 전임 수령은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재검과 이종姨從 간이었던 김상빈, 김재검의 친척들, 늙은 아전들이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하여 김재검에게 곤장 30도를 치는 것에서 이 일을 마무리 지었다. 전임 수령이 나가자 김재검은 신임 수령에게 부탁해 김상빈을 죽이고 그의 처자는 옥에 가두었다. 이강회는 그의 간악함을 보이기 위해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제주도 사람들이 참으로 복 없는 백성들이라고 한탄하였다. "이도철은 항복하고, 양제해는 죽고, 김익강은 귀양가고, 김상빈은 죽었으니 심하도다. 제주도 백성들의 복 없음이여."로 끝을 맺었다.

이상과 같은 양제해 옥사의 전말과 상찬계의 성격에 대한 설명은 19세기 초반 양제해 옥사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주는 것으로 사료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인근 전라도 지역에 만연했던 향리층 친목조직들의 병폐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전라도 지역에는 이서층들의 친목조직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65] 한편, 「상찬계시말」은 이서吏胥의 폐단을 강조하던 정약용의 경세의

64) 각주 58) 참조.

65)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나선화, 「조선 중·후기 靈光

식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요한다. 강진, 나주, 제주도 등지에서 이서들의 폐단을 직접 목도한 다산학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이서층의 병폐를 고발한 「상찬계시말」도 나올 수 있었다.

4. 맺음말

이강회는 정약용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경세학經世學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운곡잡저』, 『유암총록』, 『탐라직방설』, 『현주만록』, 『물기당요찬』 등의 저작들을 남겼다. 이 저작들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경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있었다. 그의 경세학의 사상적 기반은 『주례』 연구였다. 『주례』는 주나라 때의 제도와 문물을 정리한 책이다. 그 자체는 직제職制를 정리하는 건조한 내용일 수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었다. 본글에서 다룬 『탐라직방설』도 『주례』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제목의 '직방職方'이라는 말 자체가 『주례』의 한 항목이다. 그는 경세經世의 목적에서 『탐라직방설』을 지었던 것이다.

『탐라직방설』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제주도의 일반적인 인문지리 현황을 담은 것이고, 둘째는 「상찬계시말」이다. 첫째 부분에서는 제주도의 일반적인 지리현황을 서술하는 가운데 『주례』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 대목들이 눈에 띄며,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 주목한 부분들이 많았다. 또한 잘못된 사회적 관행을 지적한 부분들도 보이는데, 그는 죄인罪人의 자식들과 상선商船으로부터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둘째, 「상찬계시말」은 19 세기 제주도 양제해 옥사를 다

吏胥 집단의 契 운영과 그 의미」, 『지방사와 지방문화』 6-1, 2003 ; 나선하, 「19세기 초 羅州 鄕吏層의 契 組織과 邑權의 동향」, 『韓國史硏究』 130, 2005.

룬 것이다. 그간 양제해 옥사는 제주도민의 자주기도 사건 등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강회에 의하면 이는 상찬계라는 아전조직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었다.

이상, 이강회와 『탐라직방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탐라직방설』은 19세기 전반 제주도 연구서로서 다산학의 세례를 받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다. 『주례』를 학문적 키워드로 삼아 지리지 연구에까지 나아간 점은 다산학 속에서 지리 연구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상찬계시말」은 19세기 전반 양제해 옥사의 진실을 아는데 매우 유용하며, 이서층의 폐단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19세기 제주도, 나아가 전라도 향촌사회사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 이강회, 『탐라직방설』, 상찬계, 제주도, 다산학단, 『주례』, 정약용

KCI

Yi Gang-hoi's *Tamnajikbangseol*(耽羅職方說) and Jeju-do

Cho Sung-san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Yi Gang-hoi (李綱會) paid the most attention to the theories of governing among the disciples of Cheong Yagyong. He desired to inherit the doctrines of Tasan, and further, combine the doctrines of Tasan and Northern Learning (北學) as one. This is one of the most conspicuous outcomes made in the 19th century intellectual history in that it would try to unify governing thoughts of Namin (南人) and Noron (老論). At the time, one of the medium of fusion was research on *Jurye* (周禮). *Jurye* is a book that had organized systems and civilizations in the era of Ju (周). *Tamnajikbangseol* came from research on *Jurye* in an extended meaning. "Jikbang" means an item of *Jurye*. He had written *Tamnajikbangseol* in order to correctly govern the world.

Tamnajikbangseol consists of two parts in general: First, it contains general human and geological standing of Jeju-do; second is *Sangchangyesimal* (相贊契始末). In the first part, it describes the general standing of Jeju-do geology and, at the same time, it is outstanding in that it approaches *Jurye* with a critical view point the book has ; in particular, it is very notable that many military aspects are pointed out. Moreover, it also focuses on criticism of society in that it criticizes a system of government collecting unjust taxes and levies from offsprings of the criminal in

Hwabukjin (禾北鎭) or unfair taxes from commercial ships. Secondly, *Sangchangyesimal* deals with the accidental death of Yang Jae-hae in prison that severely affected Jeju-do uprisings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Yang Jae-hae's death in prison was known to be an independence movement by the people of Jeju-do, and according to Yi Gang-hoi, it was known that the uprising was manipulated by an organization of official clerks called Sangchangye (相贊契).

Tamnajikbangseol is a research book for Jeju-do in the first half of 19th century, and it is recognized as important in that it has been made with the help of the Tasan Studies. It seems important to us in the sense that *Jurye* was an academic keyword to the point of expanding to research on geological books. In particular, *Sangchangyesimal* is very useful in the sense of revealing truth of Yang Jae-hae's death in prison in the first half of 19th century. Furthermore, the fact that an evil custom of local civil functionary is described in detail would contribute greatly to research on local communities in Jeolla-do as well as Jeju-do in the 19th century.

Keywords: Yi Gang-hoi, *Tamnajikbangseol*, Sangchangye, Jeju-do, Tasan School, *Jurye*, Cheong Yagyong

KCI